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9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4-9] 인문 통합

루소의 일반 의지론과 주자학의 공론론

지문 평가

(가)에서는 서양 철학의 특정 관점이 소개되고 (나)에서는 동양 철학의 특정 관점이 소개된다는 점에서만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통합 지문과 흡사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반쪽짜리 독해다. (가)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이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나)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완전한 독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서양 철학 - 루소, 일반 의지

정치 공동체, 정치적 정당성, 공동선, 군주정, 민주정, 주권, 국민 주권의 원칙, 루소, 일반 의지론, 특수 의지, 일반 의지, 다수 의지, 전체 의지, 공화국, 시민, 군중

(나) 인문 - 동양 철학 - 주자학, 공론

초기 유학, 천명, 천명론, 민심, 민심론, 주자학, 공론론, 공론, 천리, 인심, 사람

(가)로단 1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중요성

1) **정치 공동체**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구성원들이** 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므로,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 문제는 중요하다.

▶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야만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면……

2) **정치적 정당성**이란 정치적 결정이 **공동선**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여 구성원들이 그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 '공동선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과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 공동선과 공동의 이익을 좇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셈이다.

3)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던 서양의 근대에는 **중대 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이 다수 국민에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이 제기되었으나, **다수는 오히려 사익의 추구나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로 이에 회의적인 사상가들도 적지 않았다.

▶ 개별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는 군주정에서 다수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는 민주정으로 이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거다. "과연 다수 국민이 공동선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편견에 빠지거나 사익을 좇는 데에 급급할 수 있지 않은가?"

4) **루소**는 이에 맞서 이 원칙이 민주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일반 의지론**을 제기하였다.

▶ 3)의 문제 제기에 대한 루소의 대답이다. 앞으로는 '일반 의지'가 무엇이길래 다수 국민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다.

(가)로단 2 루소의 일반 의지론

1) 루소의 일반 의지론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수 의지**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

가 공존하고 있다.

▶ 루소는 인간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특수 의지'를 갖기 때문이다. 다만……

▶ '일반 의지' 역시 갖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다.

2) **특수 의지**는 자연적 본성인 자기 보존 욕구가 **사회적 본성**으로 전환되지 못한 결과인 자기 집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라는 자연적 본성이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사회적 본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 **맥락 읽기** '특수 의지'와 '일반 의지'를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일반 의지가 어느 면에서 특별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의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본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선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3) 루소는 **일반 의지**가 **현실에서 다수결에 의한 다수 의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다수 의지가 항상 일반 의지의 표출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개별 구성원이 갖는 일반 의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 다수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 다수 의지의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 문제는 이때 다수 의지로 표출되는 것이, 항상 일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보아하니 특수 의지와 관련된 설명일 것 같은데……

4) **다수 의지**가 **특수 의지**의 단순 총합에 불과한 **전체 의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 의지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 예상대로다. 다수 의지가 **전체 의지** [→ 특수 의지의 단순 총합]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일반 의지론'이 현실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수 의지로 표출되는 것이 [전체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여야만 한다.

5)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으로 언제나 순수하고 올바른 상태에** 있어서, 민주정에서의 결정이 정치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이처럼 '일반 의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면서 공동선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다수결에 의해 다수 의지로 표출된다면 '정치적 정당성'은 당연히 획득될 수 있다.

(가)로단 3 일반 의지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

1) 다만 개인들이 특수 의지도 지니고 있는 만큼 일반 의지가 정치적 결정의 과정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함양하는 교육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 문단(2-4)에서 이미 예상했어야 하는 내용이다. 다수 의지로 표출되는 것이 **전체 의지가 아니기** 위해서는 [→ 특수 의지가 정치적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

2) 루소는 그러한 것들이 구현된 **공화국**에서의 **시민**을 일반 의지의 **실현 주체**라 보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사람의 무리**인 [→ 따라서 특수 의지의 단순 총합을 다수 의지로 표출하는] **군중**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 여기서의 '공화국'은 정치적 결정 과정에 특수 의지가 배제되는, 즉 개별 구성원들이 공히 갖는 일반 의지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정 국가를 의미하겠다. 이때의 공동체 구성원은 시민들로, 이들은 군중을 넘어서 존재이다.

3) 공화국에서 **일반 의지**는 **입법을 승인하는 시민에 의해 법에** 집약되어, **시민을 포함한 다수가 사리사욕에 빠져 공공선을 무시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그래서 **법에 일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 수록 그곳에서의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쉽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일반 의지는 시민에 의해 공화국의 법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도 쉬워진다. 일반 의지에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만이 합법적인, 즉 승인 가능한 결정이 될 수 있어서겠다.

4) 한편 루소의 『정치 경제론』에 따르면 일반 의지를 반영하는 입법의 단위가 그러하듯, 일반 의지는 하나의 공화국 내로 한정된다. 루소의 견해는 국가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공동선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 다만 이때의 일반 의지는 어디까지나 개별 공화국을 단위로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때 '공동선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공화국의 공동선에 대한 것이지, 인류 보편의 공동선에 대한 것이 아니다.

(L)문단 1 공론론의 등장 배경

1) 동양에서 군주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군주는 물론 왕조까지 교체되기도 했으므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었다.

➡ (가)에서는 서양 민주정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동양 군주정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다루었다.

2)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에 초기 유학은 하늘의 명령인 천명(天命)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보았다.

➡ 먼저 '초기 유학'의 관점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하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3) 그런데 천명은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초기 유학에서는 천명론에 이어 백성의 마음인 민심(民心)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민심론을 제기하였다.

➡ 천명에 대한 비판으로 초기 유학은 이어서 '하늘'이 아닌 '백성'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4) 다만 민심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나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싹트고, 결국 송대(宋代)에 이르러 등장한 신유학인 주자학을 통해 천명론과 민심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공론론(公論論)이 등장하였다.

➡ 민심에 대한 비판으로 주자학에 이르러서는 종합적 이론인 '공론론'이 등장하였다. '천명론 → 민심론 → 공론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잘 파악한 뒤, 앞으로는 공론론에서 어떻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지에 집중하자.

(L)문단 2 공론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1) 주자학에 따르면 공론(公論)이란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합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옳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초기 유학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그 근거들을 보다 다듬고 체계화한 개념이다.

➡ 문단-4)에 따르면 '공론론'은 천명론과 민심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천리가 하늘의 명령인 천명과 어떻게 구분되고, 인심이 백성의 마음인 민심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더 나아가 여기서 '공론'이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누구나, 보편적으로] 옳게 여기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면 훌륭하다. 이는 (가)의 루소의 한계점과 대비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2) 공론에 근거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따질 때에는 세사상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천의 명령[→ 천명]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본성으로 내재하는 이치인 천리가 강조되고, ……

➡ 천명은 그것이 실재하는지가 의심스러웠으나[문단-3)], 천리는 만물의 본성으로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가리킨다. 더 이상 신비롭고 성스러운 인격적 존재가 아닌 만큼, 그것의 실재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

3) ……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릴 수 있는 민심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것을 아는 마음인 인심이 강조된다.

➡ 인심은 그것에 내재하는 본성인 천리로 인해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문단-4)의 민심과 구분된다.

➡ (가)의 루소는 특수 의지[→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것]를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공동선을 함양하는 '교육'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제도'를 필요로 했다면, 여기서는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릴 수 있는 민심 대신에 인심을 강조하고 있다.

4) 주자가 말하는 천리로서의 이치는 자연의 운행 원리이자 도덕의 원리로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이치를 마음에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공론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없고,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 천리는 보편적 이치인데, 선천적이기도 하다. 즉 누구나 천리를 타고나는 것이다. 따라서 천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론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인위에 의해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주목** 적어도 이 지점에서 루소의 한계점[→ 인류 보편의 공동선으로 나아가지 못함]이 여기서는 문제 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론론에 따르면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공론에 따라 결정하고 통치하는 것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 공론론에서 민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론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심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즉 사사로운 욕망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L)문단 3 사람의 역할

1) 물론 주자학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천리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욕망도 있다. 그래서 공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들과 공개적 절차에 따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적 결정에서 사사로운 욕망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개적 절차에 따른 논의'이다.

2) 특히 유교적 지식과 도덕적 덕성을 갖추어 사사로운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자학에 의하면 사람은 벼슬의 유무와 무관하게 공론에 따라, 유일한 주권자인 군주를 보필, 견제하고 백성들을 선도하여 정치를 바른길로 이끄는 존재로, 공론의 중심 주체이다.

➡ 이때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다. 이들은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민심에 귀를 기울이되 군주가 공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L)문단 4 공론론의 가치와 한계

1) 공론론이 만장일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공론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의하는 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정된 것이 보편적 가치인 천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이다.

➡ (가)에서는 일반 의지가 다수결에 의해 '다수 의지'로 표출될 수밖에 없지만, (나)의 공론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 군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유일한 주권자인 군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지향하면서도 동의하는 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천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 **주목** 이렇듯 '공론론'에 따른 정치적 결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인 천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그래서 공론론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이 외면받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설령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그것이 천리에 부합한다면 공론을 거친 이후에 군주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다만 중대 사안의 최종 결정권을 한 명의 군주가 지닌다고 보는 한계를 지닌다.

➡ 현실적인 지적이다. 설령 사림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리고 천리와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권을 갖는 이는 군주밖에 없으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1에서 언급한 대로 해당 군주나 왕조가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지겠다. 천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 (나)의 군주정에서는 오직 군주만이 주권을 갖는 반면, (가)의 민주정[→ 공화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주권을 갖는다.



[10~13] 과학

크리스퍼-카스 복합체를 이용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개발

지문 평가

이제는 익숙할, 혹은 적어도 익숙해져야만 하는 '크리스퍼-카스 복합체' 기반의 응용 방안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의 목적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면역 - 크리스퍼-카스 복합체

RNA, 코로나바이러스-19, RNA 중합 효소, 크리스퍼, 회문 구조, 반복 서열, 간격 서열, 가이드 RNA, 전사, 카스 단백질, 크리스퍼-카스 복합체, 크리스퍼-카스3, 바이러스성 운반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

문단 1 코로나바이러스-19의 증식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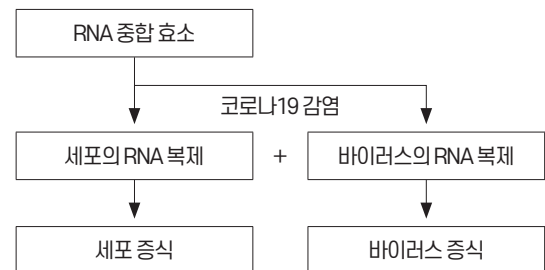
1) RNA는 단일 가닥 사슬로 이루어진 유전 물질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자기 증식을 위해 RNA를 품고 있다.

➡ RNA에 대한 설명이다. RNA는 단일 가닥 사슬로, 코로나바이러스-19의 경우 자기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19가 인체나 동물의 세포에 침입하여 이를 감염시키면, 세포의 내부에서 세포의 RNA만 복제하던 'RNA 중합 효소'는 감염으로 인해 세포의 RNA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RNA도 반복 복제한다. 그러면 복제된 바이러스의 RNA를 토대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성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19가 증식한다.

➡ 코로나바이러스-19가 증식할 수 있는 건, 감염된 세포의 'RNA 중합 효소'가 바이러스의 RNA를 복제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RNA 중합 효소가 세포의 RNA 복제를 중단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감염 이후에도 세포의 RNA 복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3) 만일 감염된 세포 내부에서 바이러스의 RNA들을 찾아 절단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이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증식을 막는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관련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유망한 물질로 크리스퍼-카스 복합체가 거론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19가 증식할 수 있는 원인은 RNA 중합 효소가 침입한 바이러스의 RNA 역시 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복제된 RNA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의 증식 역시 차단될 것이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퍼-카스 복합체'이다. 이

는 분명 바이러스의 RNA들만을 찾아 절단할 수 있는 물질일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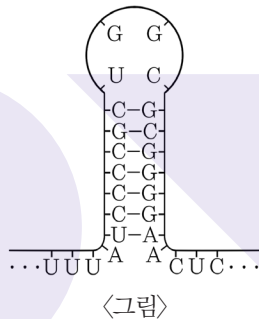
❶ **맥락 짚기** 만약에 우리 세포의 RNA들도 절단한다면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도 차단될 테고, 결국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테다. 이 점 역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문단 2 크리스퍼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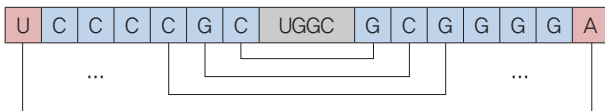
- 1) **크리스퍼**는 본래 세균의 RNA 말단에 있는 긴 염기 서열 부위로, 회문 구조를 띤 반복 서열들과 그 사이마다의 간격 서열로 구성된다.
➡ '크리스퍼-카스 복합체'를 구성하는 크리스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떠올렸다면 충분하다.



- 2) RNA를 이루는 네 종류의 염기인 A, U, C, G는 A와 U끼리, C와 G끼리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RNA의 염기는 오로지 A-U, C-G의 짝으로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 3) **회문 구조**란 <그림>에서처럼 서열의 중앙 부분 몇 개 염기만 제외하고 서열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고리 모양을 띤 구조를 말한다.



➡ 회문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일렬로 나열해 보자.



➡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떻게 <그림>과 같은 고리 모양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다. RNA는 비록 단일 가닥 사슬이지만[문단1-1] 회문 구조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상보성에 의해 이런 특이한 구조를 형성하는 셈이다.

- 4) 구조나 염기의 배열이 모두 동일한 **반복 서열**과 달리, **간격 서열**은 모두 동일한 개수의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염기의 배열이 각기 다르다.

➡ 반복 서열과 간격 서열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 두고 가자.

- 반복 서열 : 구조나 염기의 배열이 모두 동일
- 간격 서열 : 염기의 개수 동일, 염기의 배열이 각기 다름

문단 3 크리스퍼의 면역 체계 작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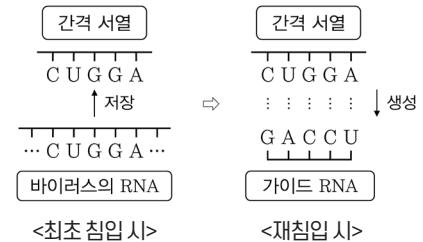
- 1) 세균에서의 크리스퍼는 박테리오파지와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세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면역 체계의 일부이다.
➡ 보아하니 '크리스퍼-카스 복합체'는 사실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존재하는 것인가 보다.

- 2) 세균에 특정 바이러스가 처음 침입하면 특정 효소의 작업에 의해 바이러스의 RNA 중 일부 서열이 크리스퍼의 간격 서열들 중 하나에 그대로 저장된다. 그래서 간격 서열마다 각기 다른 바이러스의 RNA 정보가 담기기도 한다. 이후 동일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세균에서는 해당 간격 서열[→ 바이러스의 RNA 중 일부 서열이 저장된 간격 서열]을 토대로 **가이드 RNA**를 만드는 전사가 일어난다.

➡ 두 개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처음 침입한 경우'와 '다시 침입한 경우'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3) **전사**란 상보적 결합 규칙에 따라 해당 부위와 결합될 수 있는 염기 서열 가닥을 생성하는 것이다.

➡ 가이드 RNA가 전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만약에 간격 서열에 이전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CUGGA'가 저장되어 있다면 전사에 의해 그로부터 가이드 RNA 'GACCU'가 생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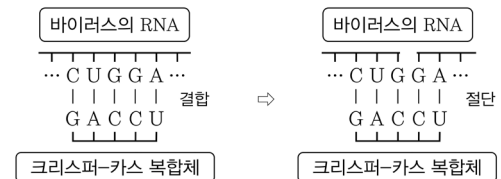
❶ **주목** 이 대목에서 '크리스퍼-카스 복합체'가 어떻게 바이러스의 RNA를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RNA는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문단2-2], 가이드 RNA는 결합하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RNA의 특정 부위와 상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4) 이와 동시에 세균에서는 염기 서열 가닥을 절단하는 기능을 지닌 일종의 유전자 가위인 **카스 단백질**이 생성된다.

➡ 복합체에서 '가이드 RNA'는 결합하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RNA를 알려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실제로 해당 가닥을 절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카스 단백질'이다.

- 5) 가이드 RNA와 카스 단백질이 결합하여 **크리스퍼-카스 복합체**가 형성되고 복합체에서의 가이드 RNA가 침입한 바이러스의 RNA에서 결합 가능 부위를 찾아 상보적으로 결합하면, 결합 부위에 대한 카스 단백질의 절단 작용에 의해 바이러스의 RNA가 절단된다.

➡ '크리스퍼-카스 복합체'의 본래 역할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다. 이제 이를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다.



문단 4 크리스퍼-카스13을 활용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

- 1) 크리스퍼-카스 복합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크리스퍼-카스13**은 단일 가닥 사슬을 절단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특정 세균에 코로나바이러스-19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코로나 대응 크리스퍼-카스13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코로나바이러스-19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쉽게 말해서 특정 세균에 코로나바이러스-19를 주입함으로써, 그에 결합할 수 있는 가이드 RNA를 포함한 '크리스퍼-카스 복합체'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겠다는 얘기다.

➡ 특히 우리의 목적은 단일 가닥 사슬[→ 바이러스의 RNA]을 절단하는 데에 있으니 그에 특화된 복합체를 활용하면 되겠다.

- 2) 코로나 대응 크리스퍼-카스13을 인체의 감염된 세포 내부까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해당 복합체가 세포 안에서 복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RNA들을 절단하여 더 이상 해당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럴겠다. 당연한 결론이다.

문단 5 AAV를 활용한 복합체 운반

- 1) 코로나 대응 크리스퍼-카스13을 감염된 세포마다 일일이 주입할 수는 없어서, **바이러스성 운반체**들 중 가장 안전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가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폐 세포에 잘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를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 크리스퍼-카스13을 부착한 AAV가 감염 부위에 도달하도록 하면, 감염된 세포 안에 AAV가 침입하면서 복합체도 세포 안에 주입된다.

➡ 다만 실제로 '크리스퍼-카스 복합체'가 코로나바이러스-19의 RNA를 절단하려면, 일단 감염된 세포에 복합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운반체'이다.

➡ 우리는 그중에서도 AAV를 운반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바이러스-19가 주로 감염시키는 폐 세포에 잘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다만 AAV에 복합체를 부착하면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합체가 세포 내부에 전달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AAV 안에 가이드 RNA와 카스13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 물질을 넣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AAV가 감염된 세포에 침입하도록 하여, 세포 안에서 생성과 결합에 의해 코로나 대응 크리스퍼-카스13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 다만 복합체를 직접 부착시킨 상태로는 감염된 폐 세포에 침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AAV 안에 유전 물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복합체를 부착시키는 대신에, 침입한 이후 해당 세포 안에서 크리스퍼-카스13이 생성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14~17] 사회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적 영향

지문 평가

경제 지문 중에서도 제법 쉬운 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는 원인이 되는 현상과, 리디노미네이션에 의한 파급 효과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자릿수, 구매력,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종립성 현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디플레이션

문단 1 화폐의 자릿수 증가와 해결 조치

- 1)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동일 재화의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의 자릿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⑤ **맥락 짚기**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화폐의 자릿수가 늘어나는 과정이다. 첫 대목에서 설명되는 과정은 지문 전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흐름을 잘 정리하자.

➡ '화폐의 자릿수' 개념은 적당한 실생활 예시를 떠올리면서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약 30년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700원이었다면 물가가 상승한 오늘날에는 7,000원에 가깝다. 즉 짜장면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의 자릿수가 3자리[→ 700]에서 4자리[→ 7,000]로 늘어난 것이다.

- 2)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실질 가치인 **구매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유발하지만, ……

➡ '구매력=화폐의 실질 가치'로 정리하자. 30년 전의 700원은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였지만, 현재의 700원은 짜장면 1/10그릇의 가치에 불과하다. 결국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낮아지는데, 이게 문제라는 뜻이다.

경제 규모 ↑ ⇨ 화폐의 양 ↑ ⇨ 물가 ↑
⇨ 화폐의 자릿수 ↑ ⇨ 구매력 ↓

- 3) …… 그 외에도 거래 금액의 기록, 계산, 지급 등에 있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대외적으로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을 표시하는 숫자가 커져서 자국 통화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예컨대 영수증에 700원을 찍을 때보다 7,000원을 찍을 때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불편함이 곧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 또한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원화가 외화에 비해 가치가 보다 더 낮아 보이는 문제가 생긴다. 즉 자국 통화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다.

📌 **참고**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축 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네 자릿수로 표시되는 것은 원화가 유일하다.

물가 ↑ ⇨ 화폐의 자릿수 ↑
⇨ 구매력 ↓, 사회적 비용 ↑, 자국 통화의 위상 ↓

- 4)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국가는 화폐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조치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수 있다.

➡ 지문의 핵심 개념이니 챙겨 두자.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화폐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조치다.

❗ **주목** 앞서 화폐의 자릿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살펴봤으니,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릿수를 줄이는 조치라고 짐작 가능하다.

➡ '화폐의 자릿수 증가'가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인위적으로 '화폐의 자릿수 감소'를 단행하는 것이겠다.

문단 2 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의 중립성 현상

1) 리디노미네이션은 구매력을 유지한 채 화폐의 액면 단위만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가령 원화에 대해 1,000분의 1의 비율로 액면 단위를 변경하면 1,000원의 실질 가치는 변경 후 1원의 실질 가치와 같아진다.

➡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화폐의 액면 단위만 낮은 숫자로 변경하게 된다. 어제까지의 1,000원짜리 지폐는 1원짜리 지폐가 되고, 10,000원짜리 지폐는 10원짜리 지폐가 되는 거다.

➡ 다만 자기 손에 쥔 10,000원이 10원으로 단위가 바뀌었을 뿐, 화폐를 보유한 자가 그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화폐의 실질 가치는 유지된다.

➡ 문단(2)에 따르면 '화폐의 자릿수'가 줄어들면 '구매력'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왜 그런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2) 물가와 임금, 채무액 등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단지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바뀔 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알겠다. 리디노미네이션에 의해 1,000원이 1원이 되어도(→ 화폐의 자릿수가 줄어들어도), 짜장면 역시 7,000원에서 7원이 되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도 일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매력은 유지된다.

3) 이는 표면적인 숫자로 표시되는 화폐의 명목 가치가 변함에도 화폐의 실질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화폐의 중립성 현상'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 '화폐의 중립성 현상'과 '리디노미네이션의 파급 효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둘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4) '화폐의 중립성 현상'이란 통화량이 변동함에 따라 경제의 명목 변수들이 변함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 변수는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 '화폐의 중립성 현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목 변수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5)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명목 임금 등 명목 변수들도 상승하지만,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임금(→ 실질 변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화폐의 중립성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과정을 정리하자.

통화량 ↑ ⇒ 물가 ↑ ⇒ 명목 변수 ↑, 실질 변수 유지

➡ 여기서는 명목 임금이 명목 변수의 예시로, 실질 임금이 실질 변수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명목상의 월급이 10% 상승한다 하더라도 물가 역시 10% 상승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실질 변수란 명목 변수에서 물가 상승분을 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6) 다만 이렇게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 실질 변수는 달라지지 않음)하더라도 물가는 상승하였으므로 리디노미네이션과 달리 화폐의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 **주목** 화폐의 중립성 현상이 리디노미네이션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시하는 핵심 문장이다. 이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문단(1)에서 정리한 과정을 끌어와 보자. '화폐의 중립성'과 무관하게 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은 떨어진다. 즉 화폐의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경제 규모 ↑ ⇒ 통화량 ↑ ⇒ 물가 ↑ ⇒ 구매력 ↓

➡ 이와 달리 3)에서 설명했듯,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자체로는 화폐의 실질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행하는 조치이므로, 기본적으로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긴 한다.

문단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

1)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급락하면 보통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증폭되어 물가 인상을 더 부추기는 등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데, ……

➡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대두된다는 얘기가. 따라서 화폐의 실질 가치는 감소하고(문단2-6), 더 나아가 경제적 혼란이 심해진다.

인플레이션(→ 물가 ↑) ⇒ 화폐의 실질 가치(→ 구매력) ↓

⇒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 ⇒ 경제적 혼란 ↑

2) ……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를 낮춰 물가가 덜 인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만큼 그러한 기대 심리를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때의 기대 효과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 이를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화폐의 실질 가치'를 높여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진정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문단2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리디노미네이션 자체는 구매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는 구매력을 낮추지 않지만, 표시되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물가가 진정된 것 같은 기대 심리를 촉발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졌다.

3) 그 외에도 리디노미네이션은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국가의 모든 화폐를 구권에서 신권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치밀한 준비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기존의 화폐인 구권은 당연히 더 이상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유 중인 구권을 모두 신권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모양이다.

4) 특히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해 지하로 숨어들면 신권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 인도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구권에 대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자 불법 자금의 신권 교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그 결과 신권 부족 사태가 확산되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다.

➡ 예시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구권 중에서도 불법 자금은 소유자 입장에서 신권으로 몇몇에게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경우 시중에 신권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되레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다.

5)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유동성 부족(→ 신권이 충분히 유통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권 공급을 임의로 늘리는 정책을 취하기 쉬운데,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신권을 과잉 공급할 경우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 이를 해결하겠다고 통화량을 마냥 늘리면 당연히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다. 3)에서 언급한 대로 치밀한 준비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단 4 심리적 측면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

1) 리디노미네이션은 정책적 측면은 물론 심리적 측면에서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론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단2-2]. 그러나 정책적, 심리적 측면에서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문단3은 정책적 측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벌금 부과로 유동성 경색이 유발되거나, 통화량 공급을 임의로 늘림에 따라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되는 등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문단4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겠다.

2) 화폐 단위가 낮아지면 재화의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낮아져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예컨대 재화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경우보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심리적 저항감이 더 낮다.

➡ 이해하기 쉽다. 가격을 올렸도 심리적 저항감이 덜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3) 또한 거래 편의를 위해 108,5원을 109원으로 올리는 경우처럼 소수점 이하를 올려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 등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

➡ 리디노미네이션에 의해 108,500원이 108,5원으로 바뀌면 편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109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셈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 주목 이론적인 차원과 달리 심리적 측면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제나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다.

4) 다만 이러한 현상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음에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물가마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때에는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 리디노미네이션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물가 하락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 3)과 같은 요인 덕분에 물가 상승이 촉진되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보기>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도 이와 같다.].

[18~21] 고전시가

(나) 「평양수심가」 작자 미상

작품 평가

「평양수심가」는 서도(西道, 평안도와 황해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요의 대표적인 작품인 「수심가」의 여러 이본(異本) 중 하나이다. 구비 문학에 속하는 이 작품은 전승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변개(變改)를 겪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작품의 주제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무상을 중심으로, 타향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沙)라

→ 만약 꿈속의 நீ이 오갈 때에 발자국을 남긴다면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은 모래가 되었으리라.

➡ 꿈속 화자는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로 밤마다 임의 집을 수없이 오갔다.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자극하다. 이옥봉의 한시 「자술(自述)」에서 차용한 시구이다.

창망(滄茫)한 구름 밖에 임 소식 알기가 망연이로다

→ 임은 아득히 멀리까지 뉘인 구름 밖에 [있기에] 소식을 알 수가 없구나.

밤은 장차 사오경(四五更)에 복두칠성이 앵돌아졌는데[→ 더 많이 돌아가 있는데]

➡ 밤이 깊어 복두칠성이 평소보다 더 위치를 이동한 상태이다. 다들 잠든 깊은 밤에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월침침(無月沈沈)야삼경(夜三更), 달도 뜨지 않아 어두운 자정 무렵의 깊은 밤에 임의 생각이 심중(心中)에 배로 나누나

➡ 기특이나 우울한데 달마저 뜨지 않아 어두운 밤에 화자는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임이 갈 때에는 지환(指環, 가락지) 한 쌍을 주고 가더니

지란 지 자(字)는 더딜 지(遲) 자요 환이란 환 자는 돌아올 환(還) 자이네

어이 그리 아니 온단 말고

➡ '지환(指環)'의 한자는 원래 '손가락 지(指)'에 '고리 환(環)'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 자는 더딜 지 자'고 '환 자는 돌아올 환 자'여서 임이 이렇게 더디게 돌아오는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 임이 이별의 정표로 주고 간 지환을 소재로 하여, 수이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뜻을 언어유희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불친(不親)이면 무별(無別)이요 무별(無別)이면 불상사(不相思)라

→ 애초에 가까이지 않았으면 이별도 없었을 것이고, 이별이 없었으면 그리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

➡ 연쇄법을 사용하여 상사(= 생각하고 그리워함)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구이다. 시작이 없었으면 고통스러운 현재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함)하던 임이 간 곳이 없구나

→ 임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임이 간 곳을 알 길이 없구나.

남아(男兒)가 궁촌(窮村)에 들면 다만 이향(離鄉, 고향을 떠남)도 상사(相思, 생각하고 그리워함)로다

→ 남자가 궁벽한 시골에 드니, 고향 떠난 것도 애타는 그리움을 일으키는구나.

생각을 하면 객고 심사(客苦心思, 객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가 좀 여복하겠나

→ 고향 생각을 하면 객지에서 고생하는 마음이 오죽하겠나.

남산은 천년산(千年山)이요 한강수는 만년수(萬年水)로구나

인생 한번 생겨났다 공수(空手, 빈손. 여기서는 빈손으로 죽음을 의미함)로 구나

➡ 불변하는 자연과 대조함으로써, 잠시 살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유정(有情)이면 불가망(不可忘)이요 무정(無情)이면 불상사(不相思)로다

→ 정이 있으면 잊을 수 없고, 정이 없으면 그리워할 일이 없다.

상사불견(相思不見)하던 임이 간 곳이 없구나

➡ 시구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청초(靑草) 우거진 곳에 누웠느냐 잠들었느냐

향훈(香魂)이 어디 가고 백발만 남았던 말이나

잔 들고 권할 이 없으니 슬퍼하노라

➡ '청초 우거진 곳에~슬퍼하노라'는 임제가 황진이이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인생무상을 한탄하여 지었다는 시조와 거의 똑같은 부분이다. 이는 다른 작품들, 특히 다른 갈래의 작품들에서 익숙하게 알려진 시구들을 차용하여 노랫말을 구성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인데, 이는 민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남산을 바라보니 금수 초목(錦繡草木)도 다시 푸르네

인생 한번 돌아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 순환하는 자연의 속성과 대조함으로써,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지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32~34] 현대시

(나)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작품 평가

'상한 영혼'과 '고통'을 호명한 이 작품은 부정적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있으며 고통은 결국 끝날 것이므로, 고통과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고 당부한다.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제 1연

상한 갈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존재]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시련과 상처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뿌리[→ 삶에 대한 의지]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상처를 입더라도] 새순은 돋거니[→ 희망]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어순 도치]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시련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 상한 갈대도 '하늘 아래'에선 흔들리면서 버틸 수 있고, 뿌리 깊은 식물이라면 상처를 입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상한 영혼'이라도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고, 즉 고통을 적극적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2연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물풀의 일종) 잎이라도[→ 연약한 존재]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희망]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희망]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희망]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능동적 태도]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가 문제라

➡ 제1연의 '뿌리 깊으면야'가 제2연에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더욱 심화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고 노래한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 맞대고 가자'고 한다. 고통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제 3연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자유로움과 활기분함]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성숙해진 삶의 자세]

두 팔로 막아도 바람[→ 변화와 희망]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시련과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감감한 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하늘 아래'는 제1연에서 '상한 갈대'도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게 해 주는 곳이고, 제3연에서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는 곳이다. 이 '하늘 아래'는 고

통받고 상처 입은 존재들을 위한 희망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2연에서 개울이 흐르고 등불이 켜지는 '이 세상 어디서나'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 '마주 잡을 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희망'에 능동적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읽어 주자. 앞 연들에서 제시된 희망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극복될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마주 잡을 손'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희망이 고통받는 대상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이윽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위로의 느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주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



이감